

김수정 입니다

DAC Artist 김수정



2021.12.7 - 12.25
두산아트센터 Space111

DAC Artist
DOOSAN
Art Center
Artist

만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의 발굴, 육성을 위해
신작 제작, 작품개발 리서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아티스트
Artist

진주(극작가)
〈클래스〉

추다혜(국악창작자)
〈쌍쌍×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조인트 콘서트〉

이승희(국악창작자)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夢中人〉, 〈여보세요〉
〈판소리 단편선-주요섭 추물/살인〉, 〈이종공간〉, 〈사천가〉

김수정(작·연출가)
〈이갈리아의 딸들〉

윤성호(작·연출가)
〈꿈이 아닌 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이런 꿈을 꾸었다〉

이경성(작·연출가)
〈러브스토리〉, 〈워킹 홀리데이〉, 〈비포 애프터〉, 〈서울연습-모델, 하우스〉
〈24시-밤의 제전〉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 배우
〈마이 아이즈 went 다크〉, 〈죽음과 소녀〉, 〈오셀로〉
〈다자이 오사무 단편선-개는 맹수다〉, 〈십이분의 일〉

양태석(드림아티스트)
〈Drum? Quest Solo〉, 〈솔로 드럼 퍼포먼스〉, 앨범 〈Human Fractal〉

김은성(극작가)
〈썬샤인의 전사들〉, 〈빨〉, 〈목란언니〉

여신동(무대디자이너·연출가)
〈노인과 바다〉, 〈피와 씨앗〉, 〈마이 아이즈 went 다크〉, 〈폭스파인더〉
〈나는 나의 아내다〉, 〈배수의 고도〉, 〈목란언니〉,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잠 못드는 밤은 없다〉, 〈인어도시〉

성기웅(작·연출가)
〈20세기 건담기 建談記〉, 〈신모험왕〉, 〈가모메〉,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과학하는 마음3-발칸 동물원 편〉, 〈깃분우리절문날〉

이자람(국악창작자)
〈노인과 바다〉, 〈아워타운〉, 〈여보세요〉, 〈판소리 단편선-주요섭 추물/살인〉, 〈사천가〉

서재형(연출가), 한아름(극작가)
〈왕세자 실종 사건〉, 〈청춘, 18대 1〉, 〈죽도록 달린다〉



진주(극작가)
Jin, Ju
Playwright



추다혜(국악창작자)
Chu, Da Hye
Minyo Artist



이승희(국악창작자)
Lee, Seung Hee
Pansori Artist



김수정(작·연출가)
Kim, Su Jung
Playwright · Director



윤성호(작·연출가)
Yoon, Sung Ho
Playwright · Director



이경성(작·연출가)
Lee, Kyung Sung
Playwright ·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Park, Ji Hye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손상규 배우
Son, Sang Kyu
A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조아 배우
Yang, Jo A
Actress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종욱 배우
Yang, Jong Ook
Actor



양태석(드림아티스트)
Yang, Tae Seok
Drum Artist



김은성(극작가)
Kim, Eun Sung
Playwright



여신동(아트디렉터/연출가)
Yeo, Shin Dong
Art Director



성기웅(작·연출가)
Sung, Ki Woong
Playwright · Director



이자람(국악창작자)
Lee, Ja Ram
Pansori Artist



서재형(연출가)
Seo, Jae Hyung
Director



한아름(극작가)
Han, Ah Reum
Playwright



DAC Artist
극단 신세계 대표

〈별들의 전쟁〉〈생활풍경〉〈사랑의 오로라〉〈공주(孔主)들〉
〈망각댄스_4.16편〉〈이갈리아의 딸들〉〈광인일기〉
〈파란나라〉〈1111〉〈말 잘 듣는 사람들〉 외

수상

2021 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생활풍경〉
제42회 서울연극제 '대상' '연출상' 〈생활풍경〉
2020 제13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젊은 연극인상'
2019 제40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관객훈장' 〈공주(孔主)들〉
2017 제54회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 〈파란나라〉 외

연출노트

혹시라도 김수정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공연이라
대단할 거라고 생각한 관객분이 계신다면 사과 드립니다.
이 공연은 그렇게 대단하지도, 멋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연극 연출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편해서 외면해온 저의 이야기입니다.

39년간 이 사회에서 실격 당하지 않기 위해 살아온 제가,
실격 당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고자 합니다.
저는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작품세계
김소연(연극평론가)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극단 신세계의 연극은 도발적이다. 이들의 연극은 무대 안에서의 미학적 도발에 그치지 않고 종종 무대의 경계를 부수면서, 때로는 그 힘이 너무 강렬해서 마치 점령군처럼 객석을 향해 밀고 들어온다. '힘'만이 아니다. 이들의 연극은 익숙하다면 익숙하다 할 수 있는 폭력의 이야기인데, 무대에서 그리고 있는 폭력의 현실이 마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신을 보는 것처럼 적나라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은 현실을 대면한다는 듯이 관객들은 그들의 연극에 한껏 지지를 보낸다. 고백하자면, 때때로 나는 객석에서 고립된 섬이 된 것 같았다. 그들의 흘러 넘치는 에너지가 불편하고 무대는 폭력의 재현이 아닌 실제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처럼 다가오기도 했다. 이들의 무대와 이들을 지지하는 관객들에 둘러싸여 이것을 새로운 연극, 새로운 세대의 연극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한편으로는 나의 감응력을 의심하면서 주저하고 있었다.

**우리의 삶은 폭력에 연루되어 있고,
정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써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극단 신세계의 연극이 달라지고 있다. 여전히 이들의 무대는 뜨겁고 가혹하며 그 가혹함이 무대의 경계를 넘어 객석까지 밀려오지만 달랐다. 2019년 <공주(孔主)들>, <이갈리아의 딸들>을 거쳐 2020년 <공주(孔主)들>, <생활풍경> 그리고 2021년 <생활풍경>과 <별들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근작들에서 이들의 도발적 언어는 폭력의 재현

혹은 증언에서 폭력을 지탱하는 연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주(孔主)들>(2019)은 바로 전해에 있었던 초연을 대폭 수정한 작품이다. 연극은 마치 페이크다큐처럼 김공주라는 인물의 인터뷰로 열고 닫는다. 그녀는 채 아이를 벗지 못한 어린 나이에 어려운 살림을 핑계로 부모에 의해 팔려가 위안부가 되고, 한국전쟁 중에는 빨갱이라는 딱지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군의 위안부가 된다. 어찌어찌 생겨난 아이와 살아 내기 위해 미군부대 주변의 클럽으로 흘러 들어가 그녀처럼 사연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클럽을 운영하는 마담이 된다. 하지만 기지촌은 쇠락해가고 클럽에 있던 동생들은 하나 둘 일본인 기생관광 사업으로 옮겨간다. 점점 늙어가는 그녀는 미아리 텍사스촌의 바지사장이 되었다가 집창촌이 해체되면서 탐골공원 주변에서 성매매를 한다. 김공주의 일생 그대로가 근현대 한국사회의 성착취의 역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연극은 '김공주'의 일생을 쫓으며 이 가혹한 역사를 그리면서도 그녀의 아픔, 분노, 슬픔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숨가쁠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는 장면들은 그녀에 대한 연민이 고여들 틈을 주지 않는다. 아마도 이 연극에서 김공주의 가장 아픈 장면이라 할, 기지촌에서 자란 아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생긴 트라우마 마저도 2020년 재공연에서는 김공주의 아픔을 부조하기보다는 아들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그녀 또한 일방적인 희생자인 것만은 아니다. 클럽의 마담으로, 집창촌의 관리자로 그녀 역시 성착취 제도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김공주에 대한 연민이 쌓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되고 있는 폭력의 현실 때문이다.

한편 이 연극은 그녀 개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에 머물지 않고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성착취의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국가의 개입을 환기한다. 그 개입이란 제국의 군대에

위안부를 공급하는 업자이기도 하고, 미군의 위생을 위해 클럽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의사들이기도 하며, 기생관광을 산업이라 부추기는 정치인과 관료들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집창촌 여성들을 구하겠다고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는 배제하는 학자와 활동가도 있다. 폭력적 현실은 처참한 희생자와 악한 국가/가해자로 명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가혹한 폭력이 존재한다면, 그 가혹함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다면, 우리 삶은 어떤 식으로든 그 폭력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2020년 초연한 <생활풍경>은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을 다룬다. 몇 해 전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던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할 것이다.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사진말이다. 이 사진 한 장은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을 기피할 수 있다는 편견,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기까지 있었을 토론회 속 격렬한 반대 등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기사가 전하는 현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이후 특수학교 건립 문제는 해당 지역의 찬반논란을 넘어 전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특수학교 건립을 지지하는 행동이 광범위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해 3월 강서구 가양동에는

연극 <공주(孔主)들> (2020)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서진학교'가 개교했다.

여전히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은 단단하지만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더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전해졌던 토론회 현장을 연극으로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다. 설마 이 연극이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장을 옹호하거나 장애에 대한 혐오 앞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회색지대를 그려간다는 것은 아닐까? 그럼 이 명백한 정의와 불의를 왜 다시 그려야 하는 것일까? 이 연극은 공연을 보기 전 들었던 이러한 지레짐작을 배반한다.

<생활풍경>은 실화를 기반으로 공동창작한 '허구'다. 연극은 서울시 강서구에서 2017년 9월 5일 있었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의 전개를 거의 그대로 따른다. 이 연극은 인터미션을 두고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는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현장을 그린다. 의자가 넘어지고 몸싸움이 벌어진다. 처음부터 격렬한 갈등이다. (실제로 강서구 주민 토론회가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프롤로그 같은 이 짧은 장면에 이어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안내되고 무대에서는 다시 토론회 준비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보도 사진이 포착한 장면이 등장하기까지 날선 주장과 비판이 내내 오간다. 혐오 발언은 물론 고성과 욕설이 시시때때로 터져 나온다.

연극 <생활풍경> (2021)



금방이라도 육박전을 벌이며 형클어질 것 같다. 이 공연의 프로그램북에 빼곡히 적혀 있는 관련 자료들을 보니 토론회의 진행이나 발언들은 실제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발췌 재구성된 것일 터이다.

그러나 이 공연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실제 사건을 다루고 실제 발언들을 발췌해 구성하지만, 수리구라는 가상의 지역을 설정하고 굳이 1부와 2부를 나누어 휴식 시간을 두는 등 연극의 관습을 확연히 나타낸다. 갈등이 고조되면서 서로 뒤엉켜 드는 장면에서는 갑자기 무대 위의 모든 인물들의 동작이 정지된 채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한가로운 일상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서정적인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초연에서는 무대 위의 인물들이 갑자기 정지한 채 <손에 손잡고>에 맞춰 어색한 움직임으로 군무를 추었다.) 객석은 장애인 특수학교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있고 관객들은 어느 한 편에 착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정마저도 관객이 어떤 입장을 선택했기 때문이기보다는 관객마저도 허구의 역할로 존재하게 한다. 그도 그런 것이 내 입장이 찬성이더라도 찬성 측 객석이 남아있지 않다면 반대 측에 앉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극은 찬성 측, 반대 측 관객들의 동의로 전개되는 것도 아니다.

주민 역의 배우들이 양편의 객석에 앉아 시시때때로 토론회에 개입하는 등 갈등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 없이 극장 전체를 종횡하며 격렬하게 전개되지만, 연극의 두드러진 형식들은 지금 여기는 극장이고,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라는 것을 환기하면서 어느 하나의 입장에 몰입하는 것에 거리를 두게 한다. 그리고 이 연극이 보여주는 갈등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폭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계도가 되어 버린 임대아파트 단지, 그 한가운데에 있던 초등학교의 강제 폐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토론회를 가로지른다. 그런가 하면 정치인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정작 갈등 앞에서는 무력하고 행정은 관계 조문만을 읽을 뿐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갑자기 연극을 멈춰 세우고 전개하는 한가로운 풍경처럼, 연극의 제목처럼,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생활풍경'이다.

재판극 <별들의 전쟁>은 베트남전쟁에서 벌어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룬다. 극장은 재판정이다.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쫐이 원고이고 대한민국은 피고다. 연극은 원고와 피고 측의 변론과 증언으로 전개된다. 관객들은 이 재판의 배심원이고 연극의 막바지에 이르면 배심원으로서 피고의 유무죄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고 그 결과가 공표된다. 재판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것은 연극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연 기간 내내 극장 밖에서는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들의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는 취지의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유무죄의 결론보다 (사실 매 공연마다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결은 달랐다고 한다)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이슈화한다는 점도 이 연극의 중요한 발언이다.

극단 신세계가 창작해온 작품의 맥락에서 보자면 재판극 <별들의 전쟁>은 한편으로는 <공주(孔主)들>과 <생활풍경>의 외전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공주(孔主)들>에서 김공주의 아들은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의 트라우마는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주변인들에 대한 폭력으로 드러난다. 재판극이라는 형식은 <생활풍경>의 페이크다큐 형식과 이어진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을 다루고 반대 증언들이 어이되고, 배심원의 평의·평결까지 재판의 형식을 취하지만 푸른 잔디를 깔아 놓은 무대 바닥이나 내내 재판정을 지켜보고 있는 나무 등으로 연극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재판극이라는 형식은 원고의 주장을 통해 베트남전쟁의 민간인 학살을 날날이

고발하지만 피고 측의 증언에서는 참전 군인들 역시 전쟁의 피해자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것은 모두가 피해자라는 절망 혹은 회색지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연극은 관객들에게 판단을 요구하지만, 정의는 한 표의 투표로 구해지지 않는다. 정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써 해야 하는 것이다. 배심원의 평의·평결이 나오고 이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진다. 원고인 응우옌티쫐이 생존자가 아닌 희생자였던 것이다. 내내 재판정을 내려다보던 나무가 그녀의 죽음을 본 목격자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했던 배우들이 푸른 잔디가 깔린 무대 위에 서서 군무를 춘다. 한국춤의 부드러운 굴신을 지운, 똑똑 끊어지는 몸짓으로. 아직 미처 완성되지 않은 진혼무 같다.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연극

극단 신세계는 그들의 무대처럼 극단의 활동도 그야말로 힘과 열정이 넘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나라 전체, 아니 세계 전체의 연극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었지만 이들의 공연 활동은 내내 이어졌다. <공주(孔主)들>의 두 번의 재공연, 신작 <생활풍경>, <사랑의 오로라>,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참가작으로 재창작한 <나는 광인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망각댄스_4.16편 박제>까지 어느 해보다 왕성한 활동을 했다. 혹시라도 전염에 노출될까 생활규칙을 함께 정하고 관리해왔다고 한다. 삶을 온통 연극 만들기에 쏟아붓는 전사들 같다.

지금까지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작업들을 이야기해왔지만 극단 신세계의 작업에는 자신들의 연극행위에 대한 반성적 작업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공주(孔主)들> 초연에서는 연극계 성폭력에 대한 고백도 있었다. <나는 광인입니다>에서는 연극하는 '나'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다. 자신의 삶과 연극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혹은 여타의 사건이나 희곡을 경유하여 연극, 연극하는 나를 되돌아본다. 예를 들어 <이갈리아의 딸들>은 원작을 두고 각색한 작품이지만 단지 페미니즘의 교과서를 충실히 번안해내는 것을 넘어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만들어 내기까지는 연극과 연극하기에 대한 성찰이 배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향한 외침만큼이나 그렇게 외치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이들의 관심은 크다. 아직 이 두 흐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들의 연극이 세상의 가혹함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더 넓고 더 깊게,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는 길에서 서로 만나지 않을까. 그 길을 지켜보는 것은 관객으로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극 <별들의 전쟁> (2021)



공연사진: IRO Company
© 2020. IRO All rights reserved.

극단 신세계

극단 신세계는 새로운 세계, 믿을 수 있는 세계를 만나고 싶은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이다.

이 시대가 불편해 하는 진실들을 공연을 통해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 주제와 형식의 제약없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으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 거리극 <망각댄스_4.16편>
서울망각투어버스 (2019)
11 연극 <공주(孔主)들> (2020)



수상

- 2021 - 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생활풍경>
- 제42회 서울연극제 '대상'
'연출상(김수정)'
'신인연기자상(김선기)'
<생활풍경>
- 2020 - 제13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젊은 연극인상(김수정)'
- 2019 - 제40회 서울연극제
'관객평가단 인기상' '관객훈장'
'우수상' '신인연기자상(양정윤)'
<공주(孔主)들>
- 2017 -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
<파란나라>
- 월간 한국연극 '2017 공연
베스트 7' <파란나라>
- 제38회 서울연극제
'관객평가단 인기상'
'신인연기자상(김보경)'
<말잘듣는사람들>
- 2015 - 제36회 서울연극제 미래야
숫아라 '연출상(김수정)'
<인간동물원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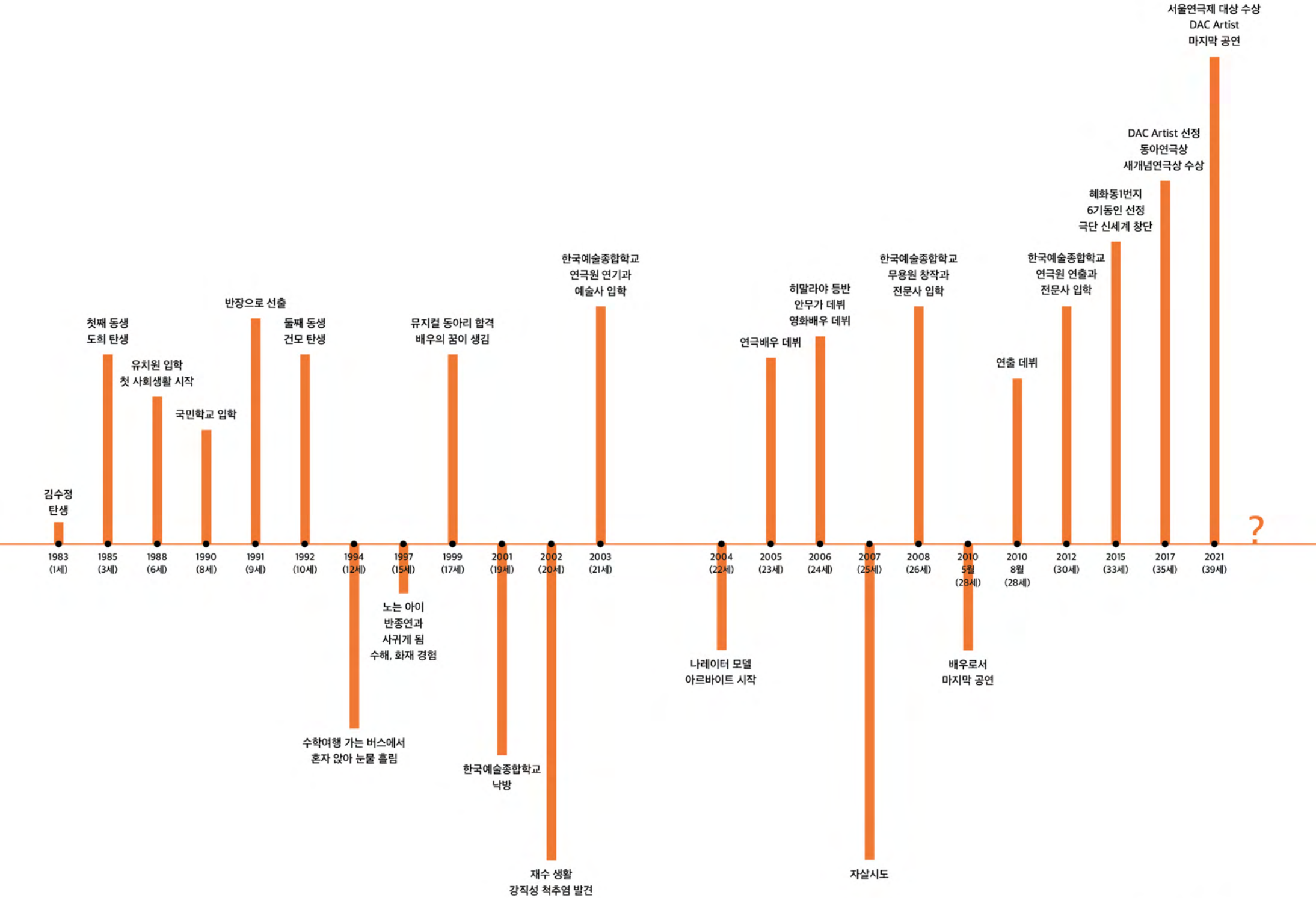
연혁

- 2021 - 필름 <망각댄스_4.16편>기억
- 재판극 <별들의 전쟁>
- 연극 <생활풍경>
- 2020 - 상업무지(無知)컬 <사랑의 오로라>
- 씨어터필름 <나는 광인입니다>
- 연극 <생활풍경>
- 연극 <공주(孔主)들2020> 앙코르
- 전시극 <망각댄스_4.16편>박제
- 연극 <공주(孔主)들2020>
- 2019 - 거리극 <망각댄스_4.16편> 서울망각투어버스
- 연극 <이갈리아의 딸들>
- 연극 <광인일기>
- 북한 만남 <단호한 결심>
- 연극 <공주(孔主)들>
- 2018 - 거리극 2018 <망각댄스_세월호편>
- 북한 경희극 <산울림>
- 연극 <광인일기>
- 연극 <공주(孔主)들>
- 연극 <파란나라>
- 2017 - 거리극 <망각댄스_세월호편>
- 연극 <파란나라>
- 연극 <1111>
- 연극 <말 잘 듣는 사람들>
- 2016 - 연극 <파란나라>
- 연극 <보지체크>
- 연극 <사랑하는 대한민국>
- 연극 <2016 그러므로 포르노>
- 연극 <멋진 신세계>
- 2015 - 상업무지(無知)컬 <두근두근 내사랑>
- 연극 <인간동물원초>
- 연극 <그러므로 포르노>
- 연극 <안전가족>

두산아트센터 Space111,
DAC Artist로서 김수정의 마지막 공연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린다.
배우들은 김수정의 특별한 동료로 이곳에 초청되어
그의 39년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김수정 인생그래프



☆ 그래프의 상승, 하강 기준은 실제 김수정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MBTI는?

잘 모름. MBTI 관심 없음.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서 안 믿음(나온 결과: INFJ, ISTJ, ENTJ 등)

2. 좌우명은?

제대로, 끝까지 하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3. 선호하는 사람 유형은?

거짓말 안 하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뒷담화 안하고, 중심이 앞이 아닌 뒤에 있는 사람

4. 스스로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은?

작품이 잘 나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을 때

5.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러운 순간은?

앞 질문 답변의 반대

6.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태국.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갔음. 가서 특별한 활동이나 관광을 하지는 않고 캐리어에 책을 가득 실어 가서 해변에 누워 책만 읽음. 태국에서도 좋아하는 곳은 푸켓과 코리페. 코리페는 푸켓에서도 배를 타고 8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섬. 각 면이 해가 뜨는 해변, 떠 있는 해변, 해가 지는 해변으로 나누어짐. 도보로 30분이면 세 면의 해변을 모두 갈 수 있음

7.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태국 음식, 떡볶이, 마라탕, 마라상귀, 주로 맵고 짜고 단 음식들

8.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회. 오징어. 가지, 곱창. 날것의 미끌미끌하고 흐물흐물한 것을 먹으면서 기분이 안 좋아짐.회는 씹으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감. 언제 녹는 거야. 삼키는 거 아닌가?

9. 김수정에게 춤이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춤을 추면 기분이 좋아지고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 내가 예뻐 보임. 솔직히 부끄럽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샤워하고 나오면 거울 보고 즉흥적으로 춤 출 때도 있음. 술 먹고도 기분 좋으면 춤추는 것 같음

10. 제일 좋아하는 춤의 장르는?

나이트 댄스. 학창 시절에 매일 나이트에서 테크노 추면서 단련한 근육으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음

11. 한 번 꽃히면 제대로 꽃히는 김수정, 어디에 꽃혀봤나?

음식은 떡볶이. 어릴 때 엄마가 한술을 해줘서 일주일 내내 매 끼니를 떡볶이로 먹기도. 태국, 이십 대 이후로 매년 갔음. 향수는 십 년 이상 쓰고 있는 샤넬 NO.5, 음악은 버스커버스커 1집, 오지는 해피로봇에디션 앨범의 '화(華)', 양희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옷도 같은 옷을 색깔별로 다 사서 계절마다 정해진 티와 바지만 입음. 요즘은 매일 플리스를 입고 있음. 잘 때는 늘 실크 파자마 세트. 신발과 다이어리도 몇 년째 같은 회사 제품으로만 구매하고 있음. 시간만 되면 한자리에서 영화를 10편씩 보기도 함

12. 한 가지만 파는 이유는?

다른 걸 처음 시도했을 때 겪을 실패들이 겁나서

13. 인생의 목표는?

2~3년 전까지는 현모양처가 목표였음. 지금의 목표는 늙어서 죽을 때 괜찮은 곳에서 잘 죽고 싶다는 것. 내가 병원에 아파서 누워 있다가 죽는 상황은 맞이하기 싫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늙어서 죽는다면 맛있는 거 먹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음. 나의 죽음도 내가 계획하고 싶음. 죽음을 잘 연출해보고 싶음

14. 죽기 전 묘비명을 쓸 수 있다면?

묘를 쓸 생각이 없음. 바다장이 괜찮은 것 같음. 생전 장례식에 관심이 있음. 죽고 나서 장례식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죽기 전에 내 주변 사람들과 잘 마무리하고 싶음

15. 가장 스타일 있었던 일탈은?

미르(박미르 배우) 따라 시작했던 첫 문신. 처음엔 스타일 있었고 다음 문신부터는 재밌었음. 1년씩 고민해서 총 4개를 했음. 태국에 갈 때마다 해서 최근에는 못 함. 문신하면 인생 전후가 달라질 줄 알았음. 또 다른 스타일은 엄마, 아빠 기대 저버리고 연기한다고 했을 때. 연극을 시작한 것 자체가 나에겐 일탈이었음

16. 가장 후회하는 선택,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은?

둘 다 연극을 시작했다는 것

17. 내가 생각하는 연출가란?

프로덕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명령하는 사람도 아니고. 연출가는 엄청난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프로덕션에서 가장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

18. 연출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계속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작업 끝나고 좋았다고 해줄 때. 예전에는 작업 하나가 끝나면 그 뒤에 작업이 없어서 다음 공연이 계획되어 있을 때는 정말 행복 했었고 무섭도록 감사했음. 그래서 초반에 극단 신세계 만들고 2~3년 차 때 계속 작업을 제안 받았을 때도 너무 감사했음. 힘들어도 행복했고 감사했음.

19. 어떤 연출로 기억되고 싶나?

김수정 연출

20. 그래도 함께 기억되고 싶은 수식어를 골라야 한다면?

좋은 작품 많이 만들었던 연출? 재밌는, 흥미로운 작품 많이 만들어낸 연출이면 될 것 같음



이유정

김수정 40년 차(태아 기간 포함). 김수정의 어머니, 김수정의 어릴 적 사진과 물건들을 너무 잘 보관해두고 있었던 <김수정입니다>의 1등 공신! 어머니는 김수정을 만날 때마다 손맛이 가득 담긴 밥상을 차려 놓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건 좋은데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야지.”라고 한다. 어머니는 노원구 댄스스포츠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수정이의 춤 실력은 어머니에게 물려 받은 듯하다.



한신영

김수정 23년차. 김수정의 중학교 시절 단짝 친구는 아니고 김수정 남자친구의 친구였다가 계속 친구하고 있는 앙숙. 김수정을 만날 때마다 “연락 좀 자주 해라, 일을 쉬어 가며 해라, 돈 되는 일을 해라”라고 잔소리를 한다. 김수정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낀 적 없나는 질문에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NO!”라고 담백하게 외치는 진정한 김수정의 친구다.



이순임

김수정 22년차. 김수정의 고등학교 뮤지컬 동아리 선생님. 김수정이 연기를 시작하게 된 뮤지컬 동아리 ‘소래어리’를 29년 째 여전히 지도하고 있다. 선생님은 김수정을 ‘수업 시간엔 열심히 성실하게 자고, 동아리 시간엔 열심히 성실하게 연습하던 학생’으로 기억한다. 김수정이 하는 ‘연극’이라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지지하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강용학

김수정 21년차. 김수정의 고3 담임선생님. 윤리, 철학교사로 고3 때 김수정은 책상과 뺨이 항상 붙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마라톤을 취미로 하고 있으며 마라톤은 완주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가 가장 힘든 것이라며 조금 더 힘내라는 응원을 김수정에게 보낸다.



김홍모

아주다남병원 병원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극단 신세계의 관객으로 김수정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김수정입니다> 공연을 위한 상담 및 자문을 요청 드렸을 때 시간만 내라고 흔쾌히 승낙해 주며 영상의학과, 내과까지 연계 상담을 열어 주었다. 대학로의 다양한 연극들을 관람하며 연극계를 지키고 있는 오랜 관객이다. 극단 신세계와 김수정뿐만 아니라 많은 연극인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다.



배창환

명성연세내과의원 원장. 극단 신세계와 김수정과는 아무런 연이 없지만 절친한 대학동기 김홍모 선생님의 요청으로 김수정의 건강검진을 지원해주었다. 건강검진 당일에는 김수정을 포함해 함께 간 스태프까지 이왕 온 거 독감예방접종은 맞고 가라고 하더니 마침 점심시간이라며 삼겹살까지 사 주었다.

8월 8일 : <김수정입니다>와의 첫 만남

<김수정입니다>를 만들기 위해 모인 우리. 각각 김수정과 지내 온 시간도, 친밀도도, 관계도 모두 달랐다. 각자의 자리에서 김수정을 알아보기로 하고 시작한 과제는 <내가 생각하는 김수정>. 내 연기를 확인해주는 사람, 모두가 동등한 창작환경을 만든 연출가, 엄마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 여백이 많은 완벽주의자, 연기할 때 악쓰지 말라고 하면서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좋아하는 사람, 가끔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발목 잡히는 사람. 우린 어떤 김수정과, 어떻게 만나게 될까?

9월 13일 : 극단 신세계 연극 돌아보기

떠려야 뿔 수가 없는 극단 신세계와 김수정. 김수정을 알기 위해선 신세계를 알아야 한다! 우린 2013년 첫 연극 연출작 <나무뺨밀리로망스>부터 2021년 <김수정입니다>에 이르기까지, 김수정과 극단 신세계의 역사를 돌아봤다. 김수정은 놀랍게도 8년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폭력이 반복되지 않을까?”

9월 29일 : 내 몸이 한 공연을 통과할 때

우리는 김수정이 매 공연을 할 때마다 읽고 힘과 영감을 얻는 책 『정희진처럼 읽기』를 교과서로 선택했다. 번역력이 생기지 않는 공연, 보고 나면 몸이 아파서 한동안 앓다가 내가 달라지는 공연. 책의 메인 문구인 ‘한 권의 책이 내 몸을 통과할 때’의 개념을 가져왔다. 이 공연이 김수정을 통과해서 내가 달라지는 경험이 되기를!

10월 8일 : 포스트드라마 논문 읽기

김수정이 매 공연 배우들에게 줬던 디렉션, “연기하지 말고 말해라.” 배우들은 각각 ‘이강호’와 ‘강주희’로, 김수정 N년차로 무대에 서기로 했다. 배우의 몸은 김수정의 삶을 이야기하는 전달자가 되기도, 무대에서 나의 말을 발화하는 화자가 되기도 한다. “Acting 하지 말고, Doing 하자!”

10월 16일 : 김수정 가정 방문

매번 연습실에 보따리 수준의 백팩을 들고 오는 김수정. 그렇다면 김수정의 집에는 무엇이, 어떤 역사가 있을까? 우린 김수정의 집에서 김수정의 39년 역사가 가득 찬 수십 권의 다이어리들, 배우일지, 노트, 그리고 에너지링크 몬스터 박스, 책상에 가득 찬 포스트잇 메모들을 발견했다. 김수정에 대해 더 알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발견한 문장 하나에 물음표가 뜬다. 김수정은 누구지?

10월 20일 : 116개의 장면발표

계획되었던 2주의 장면발표 기간이 3주로 연장됐다. 팀원들은 각각 최소 10개씩의 장면을 발표하며, 최근 작품 중 가장 많은 장면을 만들었다. 형식의 제약이 없는 만큼 수많은 아이디어와 내용이 오갔다. 그 중에는 12월 연말, 성대한 시상식으로 포문을 열자는 제안도 있었다. 연극하는 사람들이, 성대한 시상식? 연극과의 결혼식, 김수정 어워즈, <김수정입니다> 캐스팅 발표 등! 재기발랄한 의견 끝에 두산아트센터 Space111은 DAC Artist로서 김수정의 마지막 공연을 축하하는 연회장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11월 8일 : 열띤 대본 토의

첫 대본이 나오고 두 가지 버전의 결론을 함께 읽었다. 연출부가 머리를 맞대도 이 복잡다단한 텍스트의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부딪혀 보기로 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공연을 결론 짓는 일이 쉬운가!

11월 14일 : 배우, 연출가 김수정

연출가 김수정은 이번 <김수정입니다>에서 배우로도 출연해야 한다. 책상에 앉아 연출을 하다가도 무대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고단한 연습의 나날! 김수정 역의 김수정 배우는 오늘도 열연 중이다.

11월 20일 : <김수정입니다>를 만든다는 것

공연 2주 전, 연습이 한창인 두산아트센터 연습실에서 팀원들 모두의 눈물이 터졌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가끔 우리가 읽고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마주칠 때마다 섬뜩하고 생경하다. 하지만 서로를 다독이고 조용히 그 시간을 견디면서 우린 <김수정입니다>를 만들고 있다.

11월 28일 : 마지막 리허설!

극장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연습 주차에서까지 대본 수정은 이어졌다. 그동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공연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도 이상한 일인지를 온몸으로 느낀 우리들. 우리는 김수정을 통과하고 있을까? 공연 일주일 전, 김수정을 통해 관객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장면발표

공동창작의 하이라이트, “장면발표”. <김수정입니다>는 그 어느 공연보다도 길고 치열했던 장면발표 주간을 거쳤다. 그렇게 탄생한 공연 속 몇 장면을 공개한다.

#88번째 장면, 배우 김보경의 <김수정, 이견 몰랐지?>

“수정님,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지금? 진짜로?” 김수정의 학창 시절이 온전히 담겨 있는 용화여고 뮤지컬 동아리 카페를 들여다보던 중, 김수정 몰래 모신 특별한 손님이 깜짝 등장했다. 김수정이 긴가민가하며 선생님을 부르자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통해 스크린에 나타난 손님은 바로 뮤지컬 동아리 담당 교사였던 이순임 선생님. 선생님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김수정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본인은 김수정 몇 년 차이신가요?”
“학창 시절 김수정은 어떤 아이였나요?”

#93번째 장면, 배우 이강호의 <기억의 총량과 김수정 어록>

이번 공연을 기회로 우리는 평소 유독 말실수가 잦았던 김수정의 말에 집중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프리 프로덕션 기간부터 시작된 김수정 어록 수집.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김수정만의 단어들을 모으며 많이 웃기도 했지만, 매일 늘어나는 김수정어사전의 분량을 확인하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담아내는 게 많은 만큼 출력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은 김수정, 이대로 괜찮을까?

“그리고 그 터지기 전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짜장님께. ‘GOD 어머님께’의 수정식 표현입니다.”

추가로, 모두가 흥미로워했지만 아쉽게 포함되지 못한 장면들도 소개한다.

#9번째 장면, 배우 강주희의 <MBTI 김수정>

MBTI,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눈 성격유형 검사이다. 김수정의 MBTI를 알면 김수정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아본 김수정의 성격유형은 INFJ(인프제). 속이 깊어 고민을 잘 들어주고, 믿음직스러우며, 완벽주의자라는 성격유형! 우리가 잘 알던 김수정의 성격이다. 역시 MBTI는 과학인 걸까? 하지만 김수정은 MBTI를 끝까지 믿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검사해본 결과! ISTJ, ENTJ 등 자꾸만 다른 유형들이 나와 아쉽게도 삭제되었다.

“저는 MBTI로 사람을 파악합니다!”
“수정언니는 INFJ,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공감을 잘하고 계획을 좋아합니다.”

키워드 : 동력, 변화, 잘 사는 것

#28번째 장면, 연출부 전용의 <2015년의 전용, 2021년의 전용>

2021년 극단 신세계의 연출부 전용과는 사뭇 달랐던 2015년의 전용은 싱어송라이터 꿈나무였다. 해당 장면을 발표하던 중 피아노 연주와 함께 불러준 자작곡 <뿔단배>는 모두의 심금을 울렸다. 공연에서는 절대 직접 노래하지 않겠다고 그의 의지로 빠진 장면이 되었지만, 뿔단배는 팀 내의 유행가가 되어 한동안 ‘뿔단배~’ 하는 노랫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뿔단배>에 ‘뿔단배~’로 시작하는 가사가 없다는 것.

“나의 바다 위에 딸랑 돛 하나 달고 미풍 하나 없는 일상 속에 움직일 생각을 않네”
“내게로 살며시 불어와 조그만 돛배를 움직여줘요”

#42번째 장면, 연출부 조가희의 <OX퀴즈>

창작 과정이 절반 정도 진행됐을 무렵, 우리는 이제 김수정이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알 것 같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때마침 등장한 김수정에 대한 OX퀴즈, 김수정과 같은 답을 고른 인원은 얼마나 됐을까? 모두가 자신이 가장 많은 정답을 기록했을 거라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퀴즈가 끝나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 절반 이상의 정답을 맞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퀴즈는 더 없이 흥미진진했지만, 공연의 매 회차 새로운 퀴즈를 낼 자신이 없어서 포함되지 못했다.

“김수정은 마라탕보다 엽기떡볶이를 좋아한다?”
“김수정은 고독에 괴로워하는 백만장자,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소시민 중 백만장자를 고를 것이다?”

박슬기(조연출) 한 사람을 온전히 마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울과 렌즈의 왜곡 없이 자신의 겉모습조차 마주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김수정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한 긴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했다.

전용(무대감독) 김수정은 어떤 사람일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조가희(조연출) 오이는 피클이 될 수 있지만, 피클이 오이로 돌아갈 순 없다고 읽었다. 나는 <김수정입니다>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키워드 : 용화여고, 뮤지컬 동아리 소래어리, 이순임 선생님, 짹인터뷰

키워드 : 김수정어사전, 기억의 양, 총량의 법칙

키워드 : MBTI, 김수정의 성격



강주희

〈별들의 전쟁〉〈생활풍경〉〈344명의 쌍년들〉
 〈사랑의 오로라〉〈생활풍경〉
 〈공주(孔主)들2020 앙코르〉〈공주(孔主)들〉〈성〉 외

창작노트

“나는 이 사회에서 실격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지?” 이번 작품에서 마주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실격”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많은 역할이 “실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좋은 장녀가 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일, 배우로서 성공하고 싶어서 연기를 했던 일 등. 그렇게 저는 수정 언니를 통해서 내가 연기했던 수많은 연극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는 왜 연극을 할까요? 저는 왜 연기를 할까요? 그 시작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고 박수를 받는 배우가 되면 제 삶도 크게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를 뿐 제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특별한 삶을 살고 싶었던 저의 집착이 지금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를 그만둬야 할까? 연극을 그만둬야 할까? 잠시 멈춰야 할까?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극을 그만둘까 하다 가도 후회할 것 같아서 못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연극이 좋습니다.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극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극, 연기하면서 더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물 한 컵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00g? 450g? 사실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컵을 잠깐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큰 무리 없겠죠. 하지만 30분, 1시간, 3시간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팔은 덜덜 떨리고 아파지겠죠. 고민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잠깐 들고 생각하면 별일 아니지만, 그것을 몇 시간, 며칠을 생각하면 나에게 마비가 온다고 해요. 그때는 잠깐 그 물컵을 내려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요? 물컵을 내려놓는 일. 사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잠시 일시 정지를 하듯이 저한테도 그럴 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용선

〈별들의 전쟁〉〈생활풍경〉〈사랑의 오로라〉
〈공주(孔主)들2020 앙코르〉
〈망각댄스_4.16편 박제〉 외

창작노트

김수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김수정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김수정.
나와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은 김수정.
김수정은 나와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사람 김수정을 마주할수록
고귀한 척하고 있던 나를
정의로운 척하고 있던 나를
실격 당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던 “지금의 나”를 마주하기 시작했다.

김수정과 나는 그렇게 연결되었다.

그렇다면 관객분들은 연극 〈김수정입니다〉를 통해 사람 김수정과 무엇으로
연결되게 될까?



김보경

〈별들의 전쟁〉〈요정의 문제〉〈생활풍경〉
 〈사랑의 오로라〉〈공주(孔主)들2020 앙코르〉
 〈망각댄스_4.16편 박제〉〈이갈리아의 딸들〉
 〈망각댄스_세월호편〉 외

수상
 2017 제38회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자상'
 〈말잘듣는사람들〉

창작노트

연극 〈김수정입니다〉를 시작하며, 저는 제 곁에 있는 김수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잘 알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랐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작업과정 중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수정이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저는 연극 〈김수정입니다〉를 통해 상상치 못하게 김보경을 마주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척 해왔던 나 자신을 마주하니 너무 못나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선 내가 지금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연을 통해 다른 곳에 서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이 노트를 쓰는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작업 과정이 괴롭고 힘듭니다. 매일매일 낯선 곳에 서서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습니다. 관객들을 만나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도망치지 않고 잘 버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극장을 찾아 주시는 관객분들이, 김수정을 들여다보며 나를 마주하는 김보경을 통해 그동안 외면해온 자신을 마주하는 것에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극단 신세계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함께 있습니다.
 저는 극단 신세계의 김보경입니다.



남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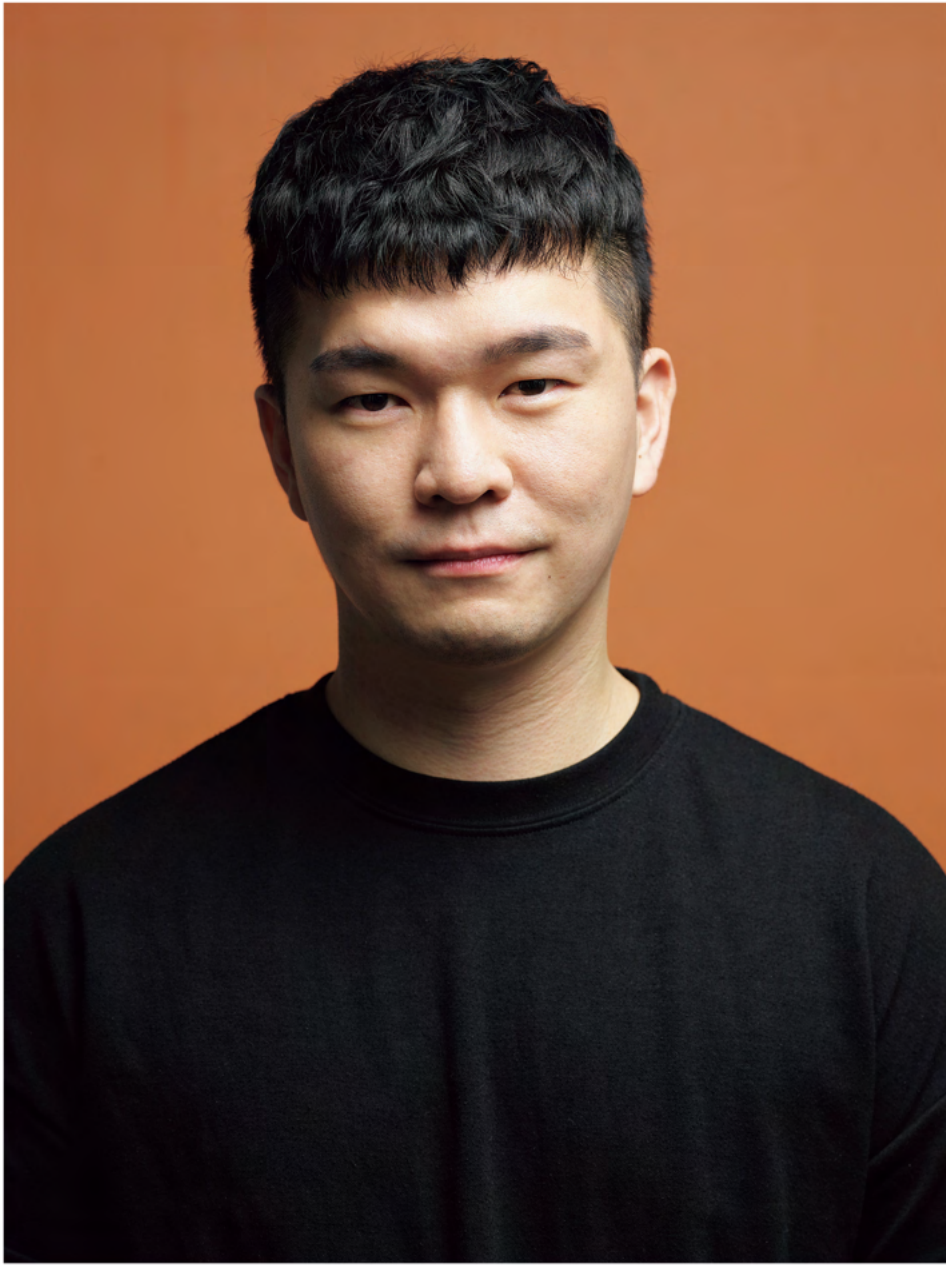
〈별들의 전쟁〉〈생활풍경〉〈사랑의 오로라〉
〈공주(孔主)들2020 양코르〉
〈망각댄스_4.16편 박제〉

창작노트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범주 안에 속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가차 없이 낙오되고 실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적고 있는 저 역시 힘을 쓰는 많은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자신을 마주하기는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쓰는 동안은 자신을 마주 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안간힘을 써온 김수정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과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김수정의 안간힘을 쓰는 삶 속에서 저는 저를,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제대로 만나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잠시 안간힘 쓰지 않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민현기

〈별들의 전쟁〉〈생활풍경〉〈사랑의 오로라〉
〈공주(孔主)들2020 앙코르〉〈망각댄스_4.16편 박제〉
〈이갈리아의 딸들〉〈망각댄스_세월호편〉 외

창작노트

김수정은 잘 살기 위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열심히는 살았던 것 같은데
재밌었던 것 같은데
마냥 좋았는데
그러면 괜찮았는데

근데 나는 지금 진짜 괜찮나?



박미르

〈별들의 전쟁〉〈생활풍경〉
 〈공주(孔主)들2020 앙코르〉〈망각댄스_4.16편 박제〉
 〈망각댄스_4.16편 서울망각투어버스〉
 〈공주(孔主)들〉〈망각댄스_세월호편〉 외

창작노트

나는 김수정을 알아갈수록 김수정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김수정을 알아갈수록 김수정을 아는 것이 고통스럽다. 김수정을 알아온 지 9년이 된 나는, 이제야 김수정을 마주한다. 이제야 김수정의 눈을 본다. 이제야 김수정을 사람으로 바라본다.

한 사람의 포장되지 않은 삶을 마주하는 것은, 어쩌면 그를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다. 나는 내 육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다. 나는 나를 모른다. 나에게 나는, 아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김수정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관객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양한 삶을 살아온 우리가, 극장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김수정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강호

<별들의 전쟁><생활풍경><사랑의 오로라>
 <공주(孔主)들2020 앙코르><망각댄스_4.16편 박제>
 <망각댄스_4.16편 서울망각투어버스>
 <이갈리아의 딸들><공주(孔主)들> 외

창작노트

연극 <김수정입니다>는 저에게 직장 상사이자, 연출이자, 누나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인 김수정을 마주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김수정을 마주하는 것은 저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주하고 싶지 않던 저의 모습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격 당하지 않으려고 발악해왔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저는, 좋은 사람으로서 실격 당하지 않기 위해 불편한 것들을 마주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 보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김수정은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대표로서, 김수정으로서 계속 연극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김수정을 사람이 아닌 대표 혹은 연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9월, 저는 김수정 그리고 친구들과 강원도 고성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다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 김수정을 마주했습니다. 그곳은 김수정도 저도 사회로부터 그리고 서로로부터의 실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실격 당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며 살아갈 거예요. 배우로서 실격 당하지 않기 위해 연습을 하고, 일자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출근과 퇴근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모습만 보이기를 반복할 겁니다. 김수정을 마주함으로써 저의 모습을 마주한 지금, 저는 이제 다시 일상에서 실격을 걱정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김수정 이강호 김보경



고용선 박미르 남호성



민현기 강주희



조가희 박슬기 전웅

무대디자인
송지인

<김수정입니다>는 한 사람이 마주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잘 펼쳐져서 마치 연말의 어느 시상식처럼
다채로운 시간이 잘 기억되길 바라며 공간을 지어 나갔습니다.





DAC Artist 20
김수정입니다

2021.12.7-12.25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출연
강주희 고용선 김보경 (김수정)
남호성 민현기 박미르 이강호

공동창작

연출
김수정

극작
김수정 박솔기 전용 조가희

조연출
박솔기 조가희

무대디자인
송지인

조명디자인
윤해인

조명오퍼레이터
이재웅

조명팀
박소라 이후정 강인성 손나래

작곡·음악감독
이율구

음향디자인
전민배

음향오퍼레이터
이예지

영상디자인·영상기록
박영민

영상제작
업플레이스

영상오퍼레이터
김연수

의상디자인
김우유

의상제작
보자르분식

분장·소품디자인
장경숙

소품디자인 어시스턴트
박진경

분장진행
장경숙 유혜민

무대감독
전웅

무대제작
온스테이지

조명대여
다인조명

그래픽디자인
박연주

사진
정희승(포스터, 프로필)
이로(연습, 공연)

인쇄
으뜸프로세스

인터뷰어
강용학 (김수정의 고3 담임선생님,
용화여자고등학교 윤리, 철학
교사)

이순임 (김수정의 뮤지컬
동아리 '소래어리' 담당교사,
용화여자고등학교 한국사 교사)

이유정 (김수정의 어머니, 노원구
댄스스포츠 연합회 회장)
한신영 (김수정의 확장시절 친구,
상장 바이오텍 임원)

김홍모 (아주다남병원 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창환 (명성연세내과의원 원장,
내과 전문의)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후원
두산

두산아트센터

예술감독
강석란

기획
박찬중 정다운

프로듀서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티켓매니저
이한별 최시윤

기술감독
김관수

조명감독
황동철 왕은지

음향감독
신승욱 류호성

무대감독
강현후 민지홍

하우스매니저
권지은 김현희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최희승 장해정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송소연

두산아트센터 공모 안내 2022

DAC Artist

DAC Artist는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접수기간 2022년 1월 5일 - 1월 25일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공연제작비 (최대 1억원)
- 공연장(Space111) 4주, 연습실 6주
- 두산아트센터 기획/제작 전반
- 홍보마케팅

공연기간 2023년 9 - 10월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학교작품 외 2개 작품 이상 창작활동 경험자
(작품은 유/무료 제한 없음)
- * 장르 제한 없음

인원 2명
* 개인만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산아트센터 2022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리지 뮤지컬 3.23-6.12
베어 더 뮤지컬 뮤지컬 6.22-9.18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10.1-11.20
광부화가들 연극 12.1-2023.1.22



두산아트랩 전시 2022 1.12-2.19
김세은 개인전 3.2-4.2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4.20-5.25
KDK 개인전 6.15-7.20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8.3-8.31
업체eobchae 개인전 9.21-10.19
두산갤러리 기획전 11.16-12.17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3.1-12.31
두산인문극장 4.4-5.30
두산아트스쿨: 미술 4.21-5.19, 10.6-11.3
두산아트스쿨: 공연 7-8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6-12

공모 프로그램

공연
DAC Artist 1.5-1.25
공동기획 5.9-6.8
두산아트랩 공연 6.13-7.13

미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3.1-3.15
두산아트랩 전시 7.18-8.1



두산아트랩 공연 2022
어느 별 좋은 날 음악극 1.27-1.29
작 박예슬 작곡 조하나 작창 안이호
낙지가 온다 연극 2.10-2.12
작 김도영 연출 민새롬
(겨)털 연극 2.17-2.19
작/연출 김유리
공의 기원 연극 2.24-2.26
각색/연출 김유림
GV 빌런 고태경 연극 3.3-3.5
각색/연출 이은비 대본구성/창작협력 김소정
유디트의 팔뚝 연극 3.10-3.12
작/연출 안정민 가야금작창 김민정
한남 제3구역 연극 3.17-3.19
작 원아영 연출 남선희
일본위 고독인 연극 3.24-3.26
작/연출 연지아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당선자없음 연극 5.10-5.28
작 이양구 연출 이연주
웰킨 연극 6.7-6.25
작 루시 커쿠우드 연출 진해정
편입생 연극 7.5-7.23
작 루시 서버 연출 윤혜숙

공동기획

죽음의 집 연극 4.9-4.24
작 윤영선 윤성호 연출 윤성호
오버더매창: 문진본풀이 판소리 8.6-8.20
작창/각색/연출 박인혜

DAC Artist

추다혜 신작 음악 9.27-10.15
구성/연출/출연 추다혜
클래스 연극 10.25-11.12
작 진주 연출 이민수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윤혜숙 신작 연극 11.29-12.17
연출 윤혜숙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artcenter.com